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Part _ 5



오감 활용의 명화 감상법

미술관 · 박물관과 친해지기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텍스트 소개

1. 西岡文彦『五感でわかる名画鑑賞術』ちくま文庫 2012.
2. 西岡文彦『絶頂美術館-名画に隠されたエロス』新潮文庫 2002.



西岡文彦(多摩大)

I. 초밥 집 아들이 가르쳐 준 미술 감상의 왕도

나는 뭐가 맛있나 ?

- 나는 어디에 있나? 어디 ; 나이, 환경, 시기, 내 컨디션
- 우린 '맛의 기준' 을 이미 알고 있다.
술 먹은 다음 날 ; 기름진 스테이크 <시원한 북어국, 산뜻한 죽>
이를 역행하는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다. 숙취 있는 이에게 스테이크가 맛있을 리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되기 쉽다.
- 명화라고, 걸작이라고 전문가나 가이드에게 끌려 다니며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을 리 없다.
- 오히려 미술 작품에 대한 거부감만 생기기 쉽다.
- 어찌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이 아닐지도 모른다.
- '맛의 기준' 은 아는데, '감상의 기준' 은 모른다 ?
- '맛의 기준' 은 지금까지 먹어 본 경험과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내가 정하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감상의 기준' 이 유효하지 못한 이유는 경험이 엄청나게 부족할 뿐 아니라, 명화니까 걸작이니까, (앤디 워홀이라구?) 내 눈에도 좋게 보여야 하고, 나도 감동해야 한다는 '내 마음의 속박' 때문이다.



저자 초밥 집 이들과의 동행

“나하고 오는 친구들은 모두 긴장해”

어떤 걸 먼저 먹어야 하는 지의 예절(禮儀作法) 때문에

“네가 좋은 걸 먹으면 돼”

“네가 좋아하는 걸, 네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먹으면 돼”



- 미술관이나 도록, 또는 화첩에서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것,
-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 즐겁게 보는 것이 미술 감상의 왕도다.
- 남의 눈치 (절대!) 볼 것 없다.
- 다빈치, 모네, 피카소라고 내 맘에 안 드는데, 괜히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 보는 척, 감상하는 척, 감동하는 척은 절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 “당신은 그림을 보십니까? 아니면 같이 간 친구나 주위의 시선을 보십니까?”

※ 절대 내 중심의 맛보기, 그림 감상을 위해서는 시각만이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 청각 등 나의 오감을 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Ⅱ.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관 감상의 10계명

어떻게 릴렉스 할 수 있을까, 술작품 즐기기 위한 대전제

1. 그림 옆에 붙은 화가 이름을 보지 말자

- 그림 옆에 붙어있는 네임 태그를 먼저 보지 않는다.
유명도에 따라 내 입맛과 나의 비평 흔들리기 때문이다.
- 일단 그림을 보고 “아 좋다!” 라고 느꼈을 때만 네임 태그를 본다.
- 자신감 배양에 기회가 된다. 아니 기회로 삼는다.
유명 ; “역시 내 눈이!” 하는 기쁨
무명 ; “내 눈은 특별해” 나만의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
- 인상은 강력했는데, 무명이었던 경우는 메모했다가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자신감 배양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
 - 미술관 전시 그림은 대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 매니아적 심미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나는 특별해”
 - 세월 지나 유명해지면 무명시절부터 “재능 발굴 자부심” 백남준 비디오 아트
- 비평가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중요하다.
- 자신이 감상도 하기 전에 네임 태그를 보려는 마음은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에 먼저 신경 쓰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수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오르세미술관(파리 오를레앙역)



오르세 인상파전시실



모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1865~6



오르세 고풍전시실 ;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자화상 등



마네, 풀밭 위의 식사, 1863



모네 양산을 든 여인, 야외 광선의 연구, 1886



카바넬, 비너스의 탄생, 1863, 오르세



2. 내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빠르기로 하자

- 그렇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은 그림으로, 이미 배가 불러 원래 보고 싶었던 그림의 맛까지 알 수 없게 된다.
- 전시회나 미술관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그림을 의무감으로 보면 보고 싶었던 그림에 도착하기도 전에 감상이 지겨워지기 마련이다.
- 인증 샷이나 찍고 가기는 감상의 적!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
- 바티칸 시스티나성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많은 걸작과 명화들이 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를 보기도 전에 쉬고 싶어진다.
- 돈은 아깝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자!
- 장사진의 대열이라도 반드시 끊어질 때가 온다. 노리자.
- 아무리 「모나리자」라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독차지 할 수 있을 때가 온다. 아니면 체면 불구하고 파고들기!!
- 어려우면 관람객이 한가한 작품만 골라 보는 것도 방법이다.
- 같은 다빈치라도 「암굴의 성모」, 「세례 요한」은 한가하다!
- 인기가 없더라도 가까이 다가가 유화 물감의 볼륨과 캔버스와 액자의 느낌을 즐긴다.



루브르 모나리자 전시실

- 인기가 없더라도 미술관에 걸린 이상 명작 걸작인 것이 대부분이다.
- 나만의 감상 속도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지름길이다.



다빈치, 암굴의 성모, 1491~1508, 루브르



다빈치, 세례자 요한, 1513, 루브르

3. 액자를 눈 여겨 보자

- 액자를 눈 여겨 보면 화첩이나 인터넷 자료에서 알 수 없었던 명화의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한다.
- 액자는 미술관과 전시회에서 밖에 볼 수 없다.
- 작가가 작품 낼 때 액자나 표구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아십니까?
- 그림 감상에 액자가 방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말로 방해가 된다면 원래부터 액자를 붙일 이유가 없다.
- 유화의 경우는 캔버스를 고정하기 위해 네 귀에 박은 못을 가리기 위해 액자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이 보이는 캔버스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 유화는 액자를 안 하면 ‘울기’ 마련이다.
- 액자의 유리는 작품에 깊이를 주기도 하고 고급스러움을 주기도 한다.
- 화첩이나 도록에 수록되는 작품에는 액자가 없다.

- 내가 간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니까 액자를 볼 수 있다.
- 액자를 음미할 수 있는 건 직접 감상하는 자의 특권이다.
- 액자는 질박한 액자에서 화려 찬란한 액자까지 실로 다양하다.
- 작가 스스로 붙인 액자도 있고, 후대의 타인 붙인 액자도 있다.

※ 루브르는 과연 「모나리자」를 잘라냈을까?!



액자 없는 도록의 모나리자 VS 액자 있는 루브르의 모나리자

2012년 신 발견 모나리자
(다빈치 재단) 10년 앞서 제작

- 지금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명한 걸작의 명화이지만, 한 때는 소유자가 작자의 원작과 다르게 원화를 잘라낼 수도 있었던 「모나리자」였음을 상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당대 모사의 모나리자 (1602년경)



라파엘로의 모나리자 (1505)

- 액자는 라이브 감상이고, 화첩은 박제의 감상이다.



미켈란젤로, 1503 성 가족, 화첩



미켈란젤로, 1503 성 가족, 우피치미술관



천국의 문(1425~52) 2014
교황 방한 전시



페르메이르, 레이스 뜨는 여인, 유화,
17세기경, 루브르



기베르티



프리다 칼로, 나와 원숭이, 1937,
M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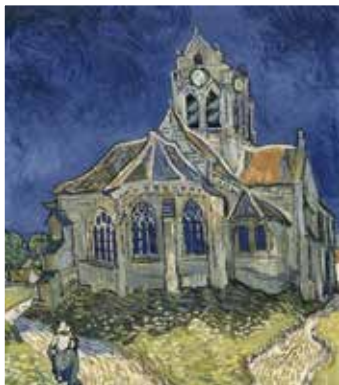
- 보다 ‘큰 액자’ 도 함께 느끼며 감상하자.
- ‘큰 액자’란? 미술관 자체, 미술관 입지 환경
- 보티첼리의 봄과 비너스의 탄생의 가장 큰 액자는 창 밖 아래로 흐르는 아르노강, 강 위에 베키오다리, 베란다 너머 두오모며, 그런 의미에서 피렌체 도시와 우피치미술관 자체를 가장 큰 액자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



- 모네 등 인상파 ; 19C 파리 오를레앙 역사를 개조한 채광 만땅의 오르세 미술관과 인상파 작품들, 파리~~~
- 앤디 워홀 팝 아트 ; 현대 경관 MOMA와 뉴욕 맨하튼
- 源氏物語繪巻 ; 千年古都 京都国立博物館, 고색창연한 東山の 景觀
- 정조 수원행차도 ; 경복궁의 고궁박물관

4. 어쨌든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가까이서 보자

- 물감의 요철이나 붓 자국 등에서 작가의 생생한 수업과 숨씨가 보인다.
- 서예작품에서 서예가의 획순과 호흡을 읽어 내려는 관심처럼.
- 고흐 등 인상과 작품은 특히 가까이서 보자.
- 개칠하고, 또 개칠하고, 또 또 개칠한 물감의 볼륨에서 보이는 고흐의 테크닉과 고민, 그리고 모네가 쫓던 빛이 보일 때까지 ...
- 언제나처럼 두텁게 칠한 부분과 캔버스 바닥이 드러나게 얇게 칠하거나 아주 칠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6월 작품, 7월의 죽음을 예견 서둘렀던 흔적? 오베르 1년 동안 100점이나 제작하느라 빠뜨린 것인가?
- 명화 「모나리자」도 「해바라기」도 처음부터 완성돼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빈치와 고흐가 텅빈 판넬과 캔버스 앞에 앉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새 기법과 자신만의 표현을 위해 고민했던 붓질이 쌓여 명화가 탄생한 것이다.



고흐, 오베르의 교회, 1890,6, 캔버스 유채, 오르세 / 세부

그들이 마주 했을 텅빈 캔버스를 먼저 떠올리고 그 위에 한번 또 한번의 붓질을 들여다보는 일은 작품의 제작과정과 화가의 인생을 함께하는 즐거움이 된다.

5. 가능한 한 각도와 거리를 바꾸어 바라 보자

- 각도 거리를 달리해 자신만의 베스트 각도를 찾아내는 게 감상의 묘미다.
- 그림보다 조각은 친근해지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각은 작품보다 기념품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 다비드, 1501~4, 아카데미아, 피렌체



밀로의 비너스, 루브르박물관

- 그러나 자기만 즐기기에 회화보다 조각이 유리하다. 보는 사람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 영웅은 올려다 보는, 미녀는 안을 듯한 느낌과 앵글로 보아야.



오귀스트 클레징제, 뱀에 물린 여자, 1847, 대리석, 오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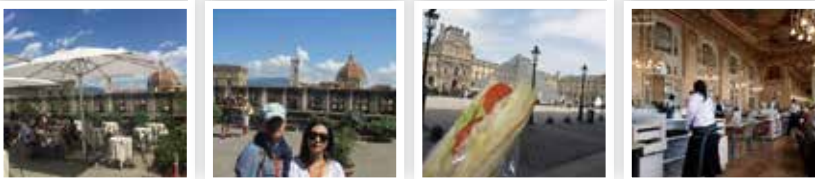


한스 홀바인, 젊은 대사들, 1533, 내셔널갤러리
※ 아나모르포시스 Anamorphosis 歪像기법

성화 테피스트리, 바티칸

6. 미술관에서는 반드시 먹고 마시자

- 맛과 향기로 연결되어 언제까지 선명하게 명작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 오랫동안 걸으면서 보는 미술 감상은 다리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 다리도 쉬면서, 목도 축이는 이유 없이는 괴롭기 만한 미술관 투어가 될 수도 있다. 여러 분들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으시죠?
- 인간의 기억은 맛과 냄새와 연결되어 선명하게 보존된다.
- 우리의 고향이 ‘엄마의 손맛’ 으로 기억되고, 특정인의 특정 향수로 기억 되듯이,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 먹고 마신 기억은 명화 감상의 기억으로 남는다.
- 저자 우피치 간판 보티첼리를 갤러리카페의 강한 에스프레소 향으로 기억하나, 우리는 피곤한 인증샷 퍼레이드로 휴식과 장기기억의 기회를 놓쳤다.



- 우리의 경험 2 ; 2011년 歐博遍歷 때, 런던 테이트 모던의 카페 / 단 10분이라도 앉아 커피나 맥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전시된 피카소와 모네, 또는 영국 현대미술 작품 하나라도 커피 향이나 맥주 맛과 함께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 저자의 경험 2 ;



고흐(1853~1890), 까마귀 나는 밀밭, 캔버스에 유채, 50X103cm, 고희뮤지엄



- 겨울 오베르역 플랫폼 벤치에서 호텔 소식을 챙겨 싸 온 차디 찬 샌드위치를 먹은 기억과 고희의 죽음이 오버랩 되었던 경험의 감상도 먹을 것을 통해서.

7.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는 반드시 기념품을 사자

- 카탈로그나 도록도 좋고, 그림엽서라도 좋다. 남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기념품이라야 한다. 살까 말까 망설여지면 무조건 사는 게 정답!!!
- 전시회나 미술관에선 반드시 뭐 하나라도 사서 돌아가자.



- 해외여행에 경우는 더 더욱 그렇다.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원인은 가격 때문이지만, 여비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사 와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 저자의 경험 1 : 피렌체에서 발견한 귀한 점성술 복제본을 돈 때문에 사지 못했는데, 이후 10년 동안 일본에서 서점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살 수 없었다.
- 나도 비슷한 경험 ; 중국 절강성박물관에서 하모도유적 보고서 사기를 미뤘다.
- 국내 미술관이라고 언제든 다시 가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돼 김해~이탈리아 VS 김해~서울, 그러나 역시 김해~서울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 엽서나 카탈로그 같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것이라도, 사서 가져오면 언제나 그 미술관과 거기서 보았던 명화가 생각나 나를 행복하게 하기 마련이다.



오르세미술관과 우피치미술관의 머그컵

- 기념품, 도록, CD 등은 과감히 사두도록 하자. 미술관에서 파는 도록은 일반 미술해설서에는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외국의 미술관에서 구입한 도록의 해설이 나만의 해설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에 좋은 사진 다 있는데 라고 사기를 포기하는 것은 나만의 해설과 나만의 추억을 포기하는 일이다.
- 어쨌든 엽서 한 장이라도 사자!!!

8. 미술관에선 나만의 ‘베스트 원’ 을 고르자

-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해 세상과 평론가의 비평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의 취향으로 ‘나만의 베스트 원’ 을 발견해 돌아오자.
- 초보에게 좋고 나쁘고는 알기 어렵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맘대로다. 내 입에 어떤 음식이 맞는 지를 타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미술관과 전시회를 즐기려면 남의 평가와 관련 없이 내 입 맛을 중시하라.
- 쓰레기처럼 보이는 현대 아트를 무리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라. 내 눈에 쓰레기로 보이면 쓰레기로 취급하면 된다. “일단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작품이라고 칭송 받게 될 것이다” 미국 팝 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이 한 말이지만, 똥은 똥이다. 내 눈에 쓰레기이면 쓰레기일 뿐이다.
- 원래 동시대의 예술(컨템퍼러리 아트)의 가치를 느끼거나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도 어려운 일이다.
- 작품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묻기만 하면 된다. “좋아?” “싫어?”
- 남(비평가)들이 좋다는 것에 맞추려 하지 말라. 미술이 싫어질 뿐이다.
- 별로면 그냥 넘어가! 나중에 만날지도 모르는 나만의 ‘베스트 원’ 을 위해서.
- 나만의 ‘베스트 원’ 을 정했다면 시간을 투자해 감상하고 그림엽서나 카탈로그를 사두자. 메모하거나 손으로 그려도 좋다. 못 그려도 아무 상관 없다.
- 휘리릭 돌아보고 ‘나만의 베스트’ 를 발견, 시간 두고 감상하고 내 애인으로 삼아 돌아오자.

9.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하자

- 좋아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좋아하는 그림을 골랐다면, 집에 돌아 온 뒤 여유롭게 그림을 생각한다. 엽서나 카탈로그를 다시 바라보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세로 좋아하는 차라도 마시며,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서라도 좋다.

- 저자의 경험 : 로렌초성당서 미켈란젤로 로렌초메디치영묘 석상을 처음 봤을 때 어디선가 봤다 했더니 영화 고통과 정열(The Agony and Ecstasy, 1966, 미켈란젤로(찰튼 헤스틴)와 율리우스 2세) VIDEO 자켓 이었다.



- 나는 왜 이 그림이 좋을까?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애인을 변덕으로 고르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마이 베스트를 우연이나 심심풀이로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형태가 좋다, 색채가 좋다, 풍경이 마음에 든다” 등등을 따지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구체화 될 수 있다. 당장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발견에 십 수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중요하고,

이런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이미 미술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 내가 좋아하는 색, 형태, 풍경 등 발견 되고,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던가를 추적 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 흥물이라던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

고향의 풍경과 닮아서, 예전에 감동했던 영화와 연결되어, 내가 되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연관되어 등등을 새기는 일이 미술 감상의 즐거움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술감상가로서 미술 감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내가 좋아하게 된 그림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 이제부터 그림을 보는 일은 명화감상이 아니라 나를 감상하는 일이 된다.

10. 감동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라

- 이야기를 해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이 내가 무엇에 감동했던가도 알게 된다.



- 다만 이야기 상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쉽게 긍정하거나, 시작부터 태클을 걸거나 하는 상대는 곤란하다.
- 미술작품의 감상에 정답이 없음을 대 전제로 하고, 협의에 도달하려 하지 말라. 서로 차이가 있는 감상을 듣고 즐길 수 있는 상대라야.
- 풍경이, 건축물이, 조각상이 마음에 들어 온 것 폼으로 집중하던 당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림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보는 방법이나 주위에 신경 쓰지 말라. 아름답다고 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Ⅲ. 10계명에 의한 실전 감상의 몇 가지

1. 아! 몽블랑 케익이다!!

- 명화 진품을 가까이 들여 다 보기.
- 기억은 시각 + 미각일 때 장기 보존된다. 고로 저자 중학생 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 내게는 모네 「수련」에서 테임즈강물 비린내와 세느강물에 섞인 소주 냄새가 난다. ^^



모네, 건초터미-여름이 끝, 아침의 효과, 1891, 오르세



건초터미 세부



쁘랭땅의 몽블랑게익

2. 젤리를 먹으면서 보았던 폴 클레의 「B문자가 있는 콤포지션」

- 오늘날에 대성황인 일러스트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
- 훗날 다시 화집을 열어도 그 때 그 젤리의 향이 가득한 느낌이 난다.
- 후각 역시 미각과 마찬가지로 시각을 기억으로 남기고 불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폴 클레, 창이 있는 콤포지션, 1919, 베른

- 저자는 에스프레소의 향기라는데 여러분은 우피치미술관의 보티첼리에서 어떤 냄새가 기억에 남았습니까?
- 미술관에서 먹고 마시며 오감 활용 감상의 기회를 활용하자!

3. 해외 여행과 해외 미술관의 기분을 되살리는 데는 음악이 최고다!

- 여러분은 첫 사랑 또는 실연의 추억과 언제나 함께 하는 음악이 없습니까?
- 특히 해외여행지에서는 음악 CD를 사자.
- 한번의 해외여행으로 나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



4. '몽블랑 케익'의 위에 뿌려진 고운 '설탕가루'를 잡기 위해 모네는 고생했다

- 모네 왈 ; “태양의 움직임에 붓이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그릴수록 내가 찾는 순간, 그러니까 주변의 대기, 산란하는 빛 등을 표현하기에는 더욱 더 연구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을 느낀다”



모네, 루앙대성당, 1892~1893, 오르세, 내셔널갤러리 등

- 루앙대성당 연작 ; 대성당 맞은편 2층 방을 빌려 자리 잡고 여러 장의 캔버스를 늘어놓아 빛이 변할 때마다 캔버스를 옮겨 다니며 그렸던 결과였다.
- 루앙대성당 연작 ; 대성당 맞은편 2층 방을 빌려 자리 잡고 여러 장의 캔버스를 늘어놓아 빛이 변할 때마다 캔버스를 옮겨 다니며 그렸던 결과였다.

5. 모네와 밀레, 가까이 또는 떨어져 바라 보기

- 빛의 입자 추적한 모네, 전원 풍경 열심히 그린 밀레보다 현장감을 잘 나타낸다.
 - 밀레 ; 신화의 영웅이나 성서의 인물이 아닌 평범한 농부를 주인공으로 한 전혀 새로운 풍경화를 제작.
 - 밀레는 당연히 이외에도 그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렸던 것도 분명하지만, 이외의 현장감이란 점은 모네에게 뒷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빛을 어떻게 포착하였을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
- ※ 같은 주제의 작품을 같이 늘어놓고 살펴보는 재미가 삼삼할 것이다.
- 역대의 비너스, 헤라클레스, 올랭피아, 티치아노와 마네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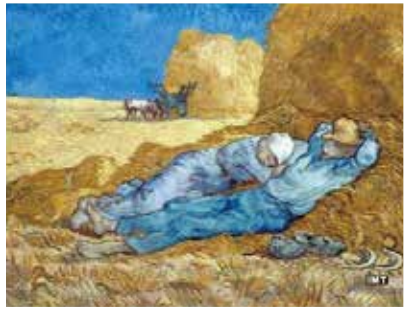
밀레, 가을 건초더미, 1874년경, 캔버스 유채, 메트로폴리탄



밀레, 낮잠, 1886~9, 종이에 파스텔, 보스턴미술관



모네, 건초더미, 1891, 오르세



고흐, 낮잠, 1889~1890, 캔버스에 유채, 밀레 모사, 오르세

6. 최초의 카메라 사용과 페르메이르의 작품

- 이렇게 풍경의 현장감은 빛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일찍 의식한 화가가 인상과 등장 200년 전 바로크시대인 17세기 네덜란드의 페르메이르(베르메르)였다.
- 유리 기술의 발전, 창유리와 렌즈의 퀄리티 비약적 발전 유리 ‘유리나 렌즈를 통해 본 세계. 셀로판지 포장과 선물의 효과.
- ‘하이라이트’ 기법은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빛의 반사를 카메라의 노출이 따르지 못해 초점 흐림이 생기는 현상에서부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메이르의 작품은 ‘하이라이트’가 풍부하게 구사되어 있다. 카메라를 사용해 대상을 보고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 페르메이르 사후 작품 관리를 맡은 사람은 현미경을 발명한 뢰벤후크였다.
- 이 카메라옵스큐라 렌즈의 위치와 페르메이르 대부분의 작품의 시점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우유 따르는 여인,
1658~1660,
암스테르담국립박물관



진주귀걸이소녀, 1665. 캔버스에 유채,
마우리츠하이ismus관, 헤이그



페르메이르, 델프트 조망, 1660, 마우리츠하이ismus관, 헤이그

7. 미각과 그림 감상

중·근세 종교 미술의 과일 상징 VS 근대 시민사회 풍요의 상징



▲ Cornelis de Heem, 과일 장식이 있는 바나타스, 1653

▶▲보티첼리, 석류의 성모, 목판에 템페라, 1487, 우피치

샤르당, 장보기, 1735, 루브르



페르메이르, 우유따르는여자

- 하이라이트 기법으로 빛나는 우유와 빵을 표현하여 근대시민사회와 산업 사회의 풍요를 상징하였다.

8. 튜브물감의 발명과 인상파의 탄생

- 아플리에 오일 혼합 → 돼지 방광 물감 주머니 → 튜브 물감의 발명
- 인상파의 시조 모네를 낳았던 것은 튜브 물감의 발명이었다. 특히 「건초더미」, 「루앙대성당」, 「수련」의 연작은 모네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시도였고, 시시각각의 빛과 대기의 변화를 현장에서 그릴 수 있게 한 것은 튜브 물감의 발명이었다.



오베르의 고흐 동상

샤젠티, 숲 가에서 제작하는 모네, 마네, 배 위에서 그리는 모네, 1874, 개인소장
1888, 테이트갤러리

- 외부 햇빛 아래서 제작 가능케 해 준 튜브 물감은 마네의 명작 「풀밭 위에 식사」를 낳았다.

- 튜브 물감의 발명 ※ 워크맨, 휴대폰의 발명보다도 혁명적이었는지? “이런 곳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니?!”
- 고흐는 이렇게 간단하고 이동 가능한 작업 도구로 들판으로 성당으로, 또는 감옥으로 빛을 쫓아 돌아 다니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9. 누드화의 변명



마네, 풀밭 위에 식사,
1863, 오르세
※ 살롱전 탈락



타치아노,
전원 음악회,
1508~1509, 루브르



마네, 올랭피아,
1863, 오르세
※ 1865 살롱전 탈락



타치아노,
우르비노비너스,
1538, 우피치



카바넬, 비너스의탄생, 1863, 오르세



보티첼리, 봄, 패널에 템페라, 1478, 우피치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캔버스에
템페라, 1485, 우피치

♣ 같은 해 같은 누드화 But 마네 탈락, 카바넬 당선

10. 만지듯이 바라보고, 내가 그리듯이 감상하자

- 대부분의 명화는 수채가 아니라 유화로 그려졌다.
 - ① 유화물감의 박력에 수채물감은 상대가 되지 않아
 - ② 바림법(Sfumato, 연기, 보카시) , 농담법(Gradation, 단계), 유리광택(Glaze)에서 유화 상대 물감 기법 없다.
 - ③ 개질이 자유롭고 볼륨의 표현을 통한 음영 표현 가능하다.
- 유화를 최초로 그린 거장 :
안 반 에이크(Jan van Eyck) 형제
처음으로 안료에 기름(oil)을 섞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짐.
cf) 템페라 ; 안료 + 달걀 등



베로키오, 그리스도의 세례, 1472~75, 나무에 유화, 우피치



안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1434, 패널에 유채, 내셔널 갤러리

- 유화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다빈치
스승 베로키오의 템페라 VS 제자 다빈치의 유화
-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유화가 아니고서는 탄생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 유화를 과신한 다빈치의 고집으로 실패 (?)한 「최후의 만찬」



다빈치, 최후의 만찬, 1495~98,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제작직후부터 박락된 예수 부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밀라노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1508~12, 바티칸



조르나타 (1일 분량)

- 모든 명화가 캔버스에만 그려진 건 아니다.
 - 「모나리자」 「비너스의 탄생」 은 나무판 패널에 그려졌다.
 - 프레스코 VS 유 (채)화
- ※ 보존에서 승리한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 세부

보티첼리, 봄 / 세부

11. 봤으면 이야기 하자

- 내 감동을 장기기억으로 보존하고 나를 미술 팬으로 만드는 중요 과정이다.
- 내가 감동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다.
- 교양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는 재미없고, 나와 듣는 사람의 그림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한다.
- ※ 미술관가이드의 전달력의 차이 발생 요소
-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는 없다.
- 루브르의 어느 프랑스인 관광가이드 :

“모델은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없죠. 동성애자일지도 모릅니다”

감동의 전달은 지 멋대로 좋지만, 사실은 열정적인 조사를 통해 전달해야 서양화나 현대미술에 전혀 소양이 없던 일본 전통의 목판화쟁이었던 저자의 스승이 루오의 작품을 처음 보고 왈 ;
 “니시오카 군, 이건 마치 스텐드글래스인데?!” / 저자는 십 수년 후에 전시회에 쓸 글을 준비하면서 루오가 젊은 시절에 스텐드글래스 기능공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주위에 눈치 보며 이야기하길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다.
- 미술 감상에 정답이 있는 거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정답을 말하려고 애쓰니까 감동하고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금새 잊어버리기 쉬우며, 미술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 미술은 일이 아니고 취미다. 취미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 다시 초밥집 아들과 초밥 먹는 법을 상기해 보자.
저자와 스승과의 대화 : 저자가 초밥집 아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통해 “ 원래 초밥은 포장마차에서 먹는 거였어! ”

어때요? 이제 그림이, 미술관이, 박물관이
조금은 즐거워 질까요?

